

「에도 시대부터 이어지는 기술과 오리지널 디자인에 의한 『지쿠센 텍스타일』의 발신」
주식회사 지쿠센(주오구)

- 1842년 창업 이래, 염색 기술을 발전시켜 독자적인 원단과 오리지널 디자인에 의한 상품 생산을 하고 있다.
- 창업 이래 축적해 온 기술과 텍스타일을 활용하여 현대의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아이템을 구축하고, 기모노에만 머무르지 않는 「지쿠센(竺仙) 텍스타일」로서 국내외에 발신한다.



「『명절 문화』의 재정의와 그 매력의 국내외 발신」
주식회사 마쓰자키 닌교(아다치구)

- 에도의 서민문화 속에서 꽃피운 「에도 아플리케 인형」과 「에도 명절 인형」 기술을 계승하고 「히나 인형」 「고가쓰 인형」에 더해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형의 제조·판매를 하고 있다.
- 지금까지 축적한 인형제조 기술을 계승·진화시키면서 현대에 어울리는 「새로운 명절」의 형태를 제안하고 그 매력을 발신해 나간다.



「에도 도쿄의 대중생활에 뿌리 내린 주염 문화의 계발과 보급」
유한회사 마루큐 쇼텐(주오구)

- 창업 이래 「신에도조메」라는 상호로 주염(注染)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기획, 판매를 전개하고 있다.
- 염색작가와 직물장인, 염색공장 등과 협동함으로써 주염 및 나아가서는 염색, 화장(和装)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그 인지도를 향상시킨다.



「숲을 만드는 북:도쿄의 삼림자원과 공예기술을 살린 풍요로운 순환형 사회의 제안」

주식회사 미야모토 우노스케 쇼텐(다이토구)

- 1861 년에 북 상점으로 창업하여 제례용품 제조 판매, 일본악기 수리·복원 등을 전개하는 외에 최근에는 일본북 스킨을 전개하여 국내외에 그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.
- 도쿄의 삼림자원을 활용하여 일본악기 상품개발을 하고 그 과정을 널리 발신함으로써 환경과 물건만들기 모두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풍요로운 순환형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도쿄에서 발신한다.



「『에도 모쿠메가네』 기법에 의한 유일무이한 결혼반지를 해외에 전개」

주식회사 모쿠메가네야(시부야구)

- 도검 장구 제작기술로 탄생하여 에도시대의 심(鑢:코등이) 장인에 의해 완성된 금속공예 「모쿠메가네(木目金)」를 응용한 주얼리를 제조.
- 모쿠메가네 전문점으로서 전통적인 모쿠메가네 문양의 연구 및 활용에 힘을 쏟고 유저 참가형으로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기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간다. 공방의 쇼룸화와 다른 업종과의 협동을 통해 「Made in Tokyo」 주얼리 브랜드로서 해외에 발신해 나간다.

